

저자 (Authors)	최성진
출처 (Source)	전력전자학회지 19(6) , 2014.12, 30-30 (1 pages) KIPE MAGAZINE 19(6) , 2014.12, 30-30 (1 pages)
발행처 (Publisher)	전력전자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221268
APA Style	최성진 (2014). [권두언]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특집을 내면서. 전력전자학회지, 19(6), 30-30.
이용정보 (Accessed)	203.250.84.*** 2017/08/01 16: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권두언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특집을 내면서



최 성 진

울산대 전기공학부 조교수

이 번호 특집에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 BMS)에 사용되는 전력전자 기술들을 정리하는 지면을 가져 보았습니다. 전력전자시스템에서 배터리는 직류 소스이자 부하로서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용 파워 셀이나 신재생에너지에 사용되는 대용량 에너지셀에서는 소용량 휴대폰 배터리팩에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욱 세련된 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유기용매기반 이차전지가 급속히 보급되는 최근의 기술 흐름에 따라 BMS는 어느덧 시스템의 안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배터리의 모델링 방법부터 배터리 잔존용량추정, 셀균등화 등 BMS에 사용되는 전력전자기술들을 정리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본 특집을 위해 학교와 산업체에서 활발하게 BMS 분야를 연구해 오신 분들이 소중한 원고를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교통대 김일송 교수님께서 배터리 모델링과 잔존용량 추정에 대한 연구동향을, 한양대 김래영 교수님께서 배터리 관리에 필수적인 배터리 셀 균등화방법에 대한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시각에서 BMS 기술동향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원고 또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련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원고작성에 수고해 주신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